

양돈업계 ‘항생제와 전쟁’ 선언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부 농가들로 인해 그동안 자조금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해 온 양돈산업 전체가 매도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 회장은 지난 11월 1일 「자유무역(FTA) 시대 국내 양돈농가 생존전략방안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항생제 과다사용으로 양돈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농가들은 산업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며 양돈업계 스스로가 항생제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 약품이 아닌 환경개선으로 해결해야

최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0월 30일 미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되면서 돼지고기 소비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생제 과다사용 보도라는 연이은 악재가 발생함에 따라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 심화로 그동안 쌓아온 자조금 사업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항생제와의 전면전’을 공식 선언하고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 정부와 양돈업계, 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영열 회장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병에 걸렸을 때는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소모성 질병의 만연으로 농가들이 약품을 사용하면 생산비가 많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약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약품에 의한 치료가 아닌 환경과 관련된 컨설팅이 필요할 때로 정부에서도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 농가들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돈산업의 악영향 미치는 농가 퇴출될 수도

한편 최 회장은 “극히 일부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양돈농가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제, “항생제 남용으로 문제를 초래한 농가는 반드시 색출, 양돈업계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며 항생제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항생제 사용을 줄일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은 외면한 채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양돈자조금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양돈환경규범’ 등 환경자정 활동과 연계, 양돈 현장에서 항생제 사용 최소화를 유도하는 등 강도 높은 대농가 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축장에서 항생제 잔류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적발농가에 대해서는 ‘3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양돈농가의 항생제 사용 자제 노력 및 성과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짐으로써 양돈산업의 현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대언론 활동 확대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양돈**